

인구 고령화와 투표행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Voting Behavior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20세기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령자의 투표 참여 의식이 젊은이들에 비해 더 높고 또 더 보수적인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고령유권자들의 태도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이유를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또 세상이 변하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유지해온 자신만의 것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은 죽음에 대한 불안 또는 더 오래 살고 싶은 욕구와 관련됨을 논하였다.

주제어 : 고령 유권자, 투표행위, 보수적 태도, 죽음의 불안, 장수의 욕구

(Abstract)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affect voting behavior in nationwide elections. Older voters among the voting eligible population have been increasing are getting since the late 20th century in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owing to the population aging phenomenon. This has fundamentally affected to the election results, for instance, the older voters tend to show much higher awareness of participation in an election and hold more supportive of conservative party of candidate than the young voters. The author reviewed how aging population phenomenon affects older generations' attitudes and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e-mail: ghyoun@jnu.ac.kr)

voting behavior and why they keep the attitudes and behavior briefly in this article. The root cause why the older people have the conservative attitudes might be that they show greater resistance to attitudinal changes as they are getting older. The cause w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ir death anxiety and/or the desire for longevity.

Key words : Older voters, Voting behavior, Conservative attitude, Death anxiety, Desire for longevity

I. 서 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후보자나 유권자의 성별이나 연령,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신념(예, 진보, 보수),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나 역할, 교육수준, 유권자나 후보자의 출신 지역, 종교, 투표가 이루어지는 시기, 후보자의 도덕성,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등 사회적 위기, 개인의 건강상태나 정서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문우진, 2009; Bartels, 2000; Caplan, 2011; Graham, Haidt, & Nosek,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지역 정체성이지만(이지혜, 2015; 정일두, 2015),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유권자의 연령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20세기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유권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투표가 가능한 연령을 21

세로 정했는데, 1960년에는 20세 그리고 2008년에는 19세까지 낮추어졌다. 행정자치부(2016)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통계청(2016)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수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9-29세는 743만 명, 30대는 753만 명, 40대는 879만 명, 50대는 842만 명, 60대 이상은 1,013만 명이다. 이를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345만 명이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유권자는 177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만약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낮추었을 경우 30대 이하의 유권자 수가 약간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60대 이상의 유권자의 증가 현상이나 30대 이하의 유권자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선거 결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근래 대다수 선진 문화권의 대중매체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투표행위를 관심의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Goerres, 2008).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연령 상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하여, 미친다면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미치는지 등을 고령자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고령자의 정치 참여 의지

1. 고령자의 투표 참여

대다수 문화권에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Hayden,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젊은 세대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Kingman, 2015). 우선 고령자의 투표 참여 의식이나 성향이 젊은이들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언제 또 어느 지역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고령자들의 투표 참여 경향이 더 높은 편이었다(Goerres, 2007).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권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 연령의 유권자가 스스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후 나중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 경우에서도 고령자의 참여 의지가 젊은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던 비율은 60세 이상의 미국인이 18-30세의 미국인보다 30% 정도 더 높았는데, 당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자들의 90%가 투표에 참여했었다(Hayden, 2011).

곧 고령자는 젊은 세대들보다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potential voter)이 더 높았고, 실제 투표에 참여했던 비율(actual voter)도 더 높은 편이었다. 영국의 자료에서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영국에서 2011년도에 선거인

단에 등록하는 비율은 65세 이상이 94%, 55-64세의 경우 90%, 35-54세의 경우 86%, 25-34세의 경우 72%, 그리고 19-24세의 경우 56%이었다(Kingman, 2015). 역시 2010년 영국의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들의 연령의 중앙치(median age)는 46세이었는데, 실제 투표자들의 중앙치는 49세이었다. 이는 선거인단에 등록한 이후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고령자일수록 더 낮다는 것을 뜻한다(Kingman, 2015).

2. 고령자의 투표 참여 의지

그렇다면 고령자들이 젊은 세대들보다 투표에 참여할 의지나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역으로 젊은 세대가 투표를 비롯한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만, 전술했듯이 고령자 관점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지식한 이유로 고령자들이 젊은이들보다 투표 참여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Hayden, 2011), 이는 그렇게 설득력이 높은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 고령자들이 젊은이들보다 투표 참여를 의무라고 여기는 의식이 더 높은 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이 의무감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호하지도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또 자신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유권자에게 투표장소를 찾게 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다.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고령자들이 투

표행위를 의무라고 여기는 의식이 젊은 세대들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Galais & Blais, 2016).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투표행위를 의무로 여기는 의식이 고령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부분적인 이유를 그들이 자랐던 투표행위를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덕목이라고 강조했던 시대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Hayden, 2011), 또 나이가 들면서 투표 참여를 경험해 보면 볼수록 습관화되어 투표행위가 더 강력한 규범이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설명한다(Goerres, 2007).

역시 의무감에 더해져 애착이나 애국심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큰 사람일수록 국가 차원의 선거에 대한 의무감이 더 강한 편이며, 국가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할수록 그리고 국가 정부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각할수록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 의무감이 더 강한 편이다. 예를 들면, 유럽인들은 자기 자신의 국가에 대한 선거에서는 의무감이 낮지 않지만, 유럽공동체 전체에 대한 선거에서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유럽공동체가 자기 나라보다 자신들의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Galais & Blais, 2016).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고령자의 투표 참여 의식과 부분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자신이 태어나거나, 성장했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인지, 얼마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고 있는지 등 사회적 정체성이 투표의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유권자가 투표가 시행되는 해당 지역사회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 집단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보다도 지역 선거에서 더 강한 애착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유권자가 고령일수록 또 그 지역에 더 오랫동안 거주해온 유권자일수록 지역 선거에 대한 의무감이 더 강하다(Galais & Blais, 2016).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Goerres, 2007).

3. 고령자의 투표 의지를 좌우하는 요소

투표 참여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고령자가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있다. 우선 유럽의 30개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조사들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고령자들이 현재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투표 참여를 결정하는 요소로 드러났다. 건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고령일수록 더 확연해진다. 곧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Mattila et al., 2013).

또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도 투표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고령자들의 투표 성향은 미혼 상태이거나 이혼이나 별거,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들보다 더 높은 편이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 헤어지기 이전부터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배우자와 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사별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보살피

는 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사별을 전후로 투표 참여 의지가 낮아지게 된다.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후에도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태의 고령자는 원래부터 투표 참여의 의식이 낮았다면 투표 참여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Hobbs et al., 2014).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투표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가 있다가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망하기 직전에는 투표율이 낮았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투표 성향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비교해보면, 그와 같은 영향은 고령자들보다도 65세 이하의 유권자들이 더 크게 받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더 큰 이유는 젊은 상태의 사별, 특히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상처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인보다 과거에 투표 성향이 높았던 사람은 사별 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인보다 투표 성향이 낮은 사람은 사별 직후에는 투표 참여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또 사별 이후라도 사회적 연결이 잘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Hobbs et al., 2014).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이나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도 역시 투표 참여의 의지나 행동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정치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의 의지도 더 높은 편이다(문우진, 2009). 고령자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나 배우자가 없거나,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낮을 경우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낮아지게 된다. 꼭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40대 이상이면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더 낮은 편이었다(Gorres, 2007).

III. 고령자의 정치적 보수성

1. 고령자의 보수성

정치 철학의 입장에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 근본이 다르다. 보수주의가 옛것의 가르침을 더 중시한다면, 진보주의는 새로움의 추구를 더 중시한다(Carey, 1998). 곧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한 반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익숙함이나 안정, 예측가능성 등에 가치를 더 두고 있으며 또 사회 질서 유지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Graham et al., 2009).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 이후 여러 문화권에 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연령과 정당 선택에 관한 조사 결과들을 발표해오고 있는데, 연령과 정당 선택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고령자들의 정치적 이념은 젊은이들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투표에서도 고령자 유권자가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한 비율은 젊은 세대들 또는 전체 유권자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Chamorro-

Premuzic, 2014; Hayden, 2011; Kingman, 2015; Tilley & Evans, 2014).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10,000명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한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서 높아졌는데, 18-29세는 10%, 30-49세는 18%, 50-64세는 28%, 그리고 65세 이상은 32%이었다(DeSilver, 2014).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표를 할 때 보수 성향의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서 보수적 성향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근래에는 평생교육과 같은 제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의 기회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에게 변화와 발전 등 진보적 가치를 심어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Tilley & Evans, 2014). 곧 선거가 단순히 보수와 진보 양자 구도로만 진행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보다 유권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수 성향의 정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Sohn, 2012).

2. 고령자의 보수성이 높은 이유

고령 유권자들의 보수성은 그들이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지, 살아오는 동안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위기 등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수성향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순히 표현하면, 고령자들의 투표성향이 젊은이들과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의 인생 역정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1930년대에 태어나 1945년

도에 처음 투표했던 사람들은 노동당의 복지 관련 정책을 도입했던 시기를 경험한 이후 줄곧 노동당 성향이 갈수록 높아졌으며, 1950년대 또 1980년대 성년이 된 사람들도 다른 조건이 다르지 않다면 타 집단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Goerres, 2008; Sohn, 2012; Tilley & Evans, 2014).

또 유권자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특정한당이 지배적이었다면, 나중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 투표를 해보는 유권자에게는 부모와의 동일시 효과 때문에 보수적인 부모를 따를 수 있고, 이와 같은 영향이 성년기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Tilley & Evans, 2014). 이러한 관점은 전형적으로 투표행위의 미시간(Michigan)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Tilley & Evans, 2014). 미시간 모델은 1950년대 미시간 대학교 연구소의 정치학자들이 제안한 이론인데, 유권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 때문에 보이는 투표행위를 설명해준다. 이 모델에 의하면, 특정한 정당에 대한 애착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Peele, 2004, p. 325).

물론 이 모델이 다른 모델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한다. 또 영국의 경우를 보면, 근래의 고령자들은 젊은 세대들과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Goerres, 2008). 그러나 어느 시기에 태어났고 또 어떤 위기를 맞이했는가에 상관없이 고령자들의 보수성이 젊은 세대보다 더 높고,

또 보수성을 보인 고령자들의 상당수가 노년기에 와서 보인 보수성은 젊은 시절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즉 고령자들의 상당수가 젊은 시절에는 진보 성향을 보였던 것이다(Chamorro- Premuzic, 2014). 이에 고령자들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혹자는 고령으로 갈수록 지적 호기심이 감소하는 현상과 결부시켜 보수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도 과거의 지식 위주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고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더 불편하게 바뀌거나 하는 점 등이 싫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으로 인해 변화가 생기면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곧바로 대처하는 적응이나 노력을 요하는데,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는 어느 연령층에서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스트레스는 젊은 세대들보다 고령일수록 더 심하기 때문에 옛것을 고수하고 싶은 것이다(Chamorro-Premuzic, 2014).

3.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큰 이유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또 세상이 변하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유지해온 자신만의 것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도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제3자에게는 잘못으로 보이더라도 또 설령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이 있거나 합리

적이지 못함을 이해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완고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고령자의 특성이다. 그와 같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큰 성향이나 친숙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투표행위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이로 인하여 진보보다도 보수 성향을 보이게 된다. 고령자들의 보수성 유지 태도는 그들의 자존심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데, 만약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불안정이나 자기 의심 등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Chamorro-Premuzic, 2014; Tilley & Evans, 2014).

과거로부터 유지해온 관점이나 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 즉 고령자들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은 오래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과거와 연결된 물건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문제의 해결방식도 예전의 것에 집착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령자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자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설령 잘 알고 있더라도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나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태도를 바꿀 경우 자신의 현재 나이 등을 인정하는, 즉 여생이 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클 수 있다(윤가현, 2016a, 2016b).

그러한 연유로 고령자들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인식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85세라고 할 때 75세의 고령자에게 60대 초반처럼 보인다는 말은 적어도 20년 이상을 살 수 있다는 평가처럼 들리므로 기분을 좋게 하는 반면에 80대처럼 보인다면 몇 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는 평가처럼 들리므로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버린다(윤가현, 2016a). 고령 유권자들도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투표행위는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85세라고 할 때 75세의 유권자는 변화를 강조한 입장을 선택하면 여생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만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본인의 여생이 10년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이나 40년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준다.

고령자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장수의 욕구를 위해서 옛것을 상기시켜주는 후보자나 보수성향의 후보자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근래 우리나라 상황에 접목시켜 해석해보자.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켜주는 결정적인 이득을 안고 있었으며, 고령 유권자들도 자신의 20대나 30대 시절과 현실이 연결되므로 그녀의 도덕성 문제 여부에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편한 후보자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고령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불안감 때문이며 또 과

거와 단절시키고 현실을 수용할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나 진보로 극명하게 갈리는 대신에 비슷한 성향의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없이 성향의 수준이 비슷할 경우 고령자에게는 더 나이가 많은 후보자를 더 편하게 여긴다. 나이가 더 젊은 후보자는 나이가 더 많은 후보자에 비해서 고령자에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해준다. 곧 나이가 젊은 후보자일수록 고령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보수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IV. 결 론

투표는 정치적 참여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이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된다(Goerres, 2007).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한 예로 유권자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 수 있다. 그 수준이나 지위가 높을수록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문우진, 2009).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즈음은 평생교육제도가 활성화되고,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더라도 정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선진 문화권에서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유권자의 연령이 투표행위를 예언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령효과는 유권자가 평생에 걸쳐 경험했던 일(취업, 결혼, 양육, 퇴직 등), 투자했던 것이나 소유한 자원, 사회적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심리적 또는 사회적 노화과정에 관련된다(Gorres, 2007; Tilley & Evans, 2014). 결국 연령이 높을수록 노화과정에 의해 보수적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태도는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젊은이들에게는 합리적이지 못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령 유권자는 젊은 세대들보다 보수적인 의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Hayden, 2011; Kingman, 2015; Sohn, 2012). 곧 정치적 관점이나 인간의 가치는 다면적이지만, 단순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때에는 유권자의 연령분포만을 토대로 투표 행동이나 결과를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Graham et al., 2009).

물론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의해 투표 행위 여부나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기도 하고, 간혹 후보자의 외모와 같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지엽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닌 요소 중에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다(Graham et al., 2009). 그러나 모든 유권자들이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보

다 도덕성(사회 정의, 환경 보호, 폭력 예방, 취약계층 보호, 약자의 권리 등)을 덜 중요시하며, 그 대신에 내집단(in-group)의 정체성(예, 종교가 같은지, 출신 지역이나 학교, 군부대 등이 같은지 등)을 더 중요시하며,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더 강조하며, 또 국가의 안보나 옛 것의 순수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Graham et al., 2009).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다수 선진 문화권에서 고령자들이 유권자로서의 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결국 후보자의 성향이나 정당의 정책들은 고령자들의 기대에 맞추어주지 않으면 선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불참은 인기가 없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지만(Kingman, 2015),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 성향의 입장이 점점 더 유리해지게 된다. 이는 고령 유권자들의 장수의 욕구에 관련된 현상이다. 고령화 추세 때문에 선거 정책은 물론이고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도 고령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4), 327 -349.
- 윤가현 (2016a).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특성.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편, **노인재활의학** (pp. 115-129). 서울: 군자출판사.
- 윤가현 (2016b). 노년기에 경험하는 죽음에 대

- 한 불안의 이해. *한국노년학연구*, 25, 131-151.
- 이지혜 (2015). 지역감정의 변화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2 대통령 선거와 2014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두 (2015). 지역정체성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KOSIS 국가통계포럼**. Available at <http://kosis.kr>.
- 행정자치부 (2016). **주민등록 인구통계**. Available at http://rcps.egov.go.kr: 8081/jsp/stat/ppl_stat_jf.jsp
- Bartels, L.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35-50.
- Caplan, B. (2011). *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 Why democracies choose bad polic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rey, G. (Ed.) (1998). *Freedom and virtue: The conservative/ libertarian debate*.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Books.
- Chamorro-Premuzic, T. (October 11, 2014). Why are older people more conservative? Decoding the politics of aging. *Psychology Today*. Available at <http://www.psychologytoday.com/blog/mr-personality/201410/why-are-older-people-more-conservative>.
- DeSilver, D. (2014). *The politics of American generations: how age affects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Pew Research Center. Available at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07/09/the-politics-of-american-generations-how-age-affects-attitudes-and-voting-behavior>.
- Galais, C., & Blais, A. (2016). Do people feel more of a duty to vote in some elections? *West European Politics*, 39(4), 755-777.
- Goerres, A. (2007). Why are older people more likely to vote? The impact of ageing on electoral turnout i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9(1), 90- 121.
- Goerres, A. (2008). The grey vote: Determinants of older voters' party choice in Britain and West Germany. *Electoral Studies*, 27(2), 285-304.
- Graham, J., Haidt, J., & Nosek, B.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 Hayden, B. (September 27, 2011). Why do old people vote more? It may not be a question of civic duty. *Psychology Today*. Available at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the-decision-tree/201109/why-do-old-people-vote-more>.
- Hobbs, W., Christakis, N., & Fowler, J. (2014). Widowhood effects in voter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1), 1-16.

- Kingman, D. (2015). Intergenerational injustice and party politics. *e-Pública*, 2(2), 87-97.
- Mattila, M., Söderlund, P., Wass, H., & Rapeli, L. (2013). Healthy voting: The effect of self-reported health on turnout in 30 countries. *Electoral Studies*, 32(4), 886-891.
- Peele, G. (2004). *Governing the UK: British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4th ed.). Hoboken, New Jersey: Wiley-Blackwell.
- Sohn, E. (January 19, 2012). *Do people become more conservative as they age?* Available at http://www.nbcnews.com/id/46057552/ns/technology_and_science-science/t/do-people-become-more-conservative-they-age/#.WG2V40-7rmQ.
- Tilley, J., & Evans, G. (2014). Ageing and generational effects on vote choice: Combining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to estimate APC effects. *Electoral Studies*, 33(1), 19-27.
- 원고접수일: 2017. 02. 20.
수정원고접수일: 2017. 03. 27.
원고게재승인일: 2017. 04. 03.